

교 회 목 표

신랄한 애매
친국인론 앞당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로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9월 13일 금요일

구약에 나타난 선교

서론(Introduction)

1950년대까지 선교의 전략은 '네비우스' 원칙에 따라 의료선교와 교육선교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급자족하게 하는 자능선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 '세계선교협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에 충실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하는 사역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르러서 신학교에 선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선교의 흐름을 측정하는 '선교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선교를 '보내는'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800회 이상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200회 정도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주체가 되신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창 12:1~3, 22:2, 31:3, 9, 사 68, 렘 1:7~10, 겔 2:3, 12, 말 3: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꾼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으로서 첫 번째로 기록된 이름이었는데, 특히 '보낸다'는 표현이 모세를 향해서 반복되었다(출 3:10~15, 신 34:11, 삼상 12:8, 시 105:26).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보내지고 있음이 적용되고 있다(사 68, 55:11, 렘 1:7, 겔 3:5~6).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이요(렘 14:14~15, 렘 23:21, 28:15, 겔 13:6, 반변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왕하 17:13, 렘 7:25, 25:4, 26:5, 29:19, 스 7:12).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은, 구약성경에 이방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또'라는 여인을 통해서 모압 땅이 소개되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돔' 땅이 소개되며(욥 1:1), 주전 8세기경에 예언 활동을 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열 개의 이방이 소개된다(7장~12장, 24장~27장에서는 각각 메사의 초림과 재림이 묘사되어 있고, 13장~23장 사이에 이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52장, '에스겔' 25장~32장, '야고브' 1장~2장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방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시된 이방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경종의 의미이기도 하다(물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느느'로 보내셔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의 길을 걷게 하시고도 하였다(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남-유다 두 지파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온 지역으로 흩어져고,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그들로 인하여 온 세상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택한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셨는데, 그 예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다(왕하 5:2~3).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선교인 선교'로 성취되는지를 깨달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 · 난 · 수 · 요 · 에 · 매 · 매 · 시 · 지

홍정 (마 26:14-15)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온 삼십을 달아 주거늘"

서론

한 연201이 매우 귀한 향유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7절).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남비하는 것이라며 흥분하였(8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상급한 판단과 분노에 분노에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내 몸 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12절). 그리고 바로 '그 때에' - 예수에 대한 반감(反感)이 사람들 속에서 확산되고, 제자들이 서로 실망감에 사로잡혀있고 있는 그 때에 - '가롯 유다'는 아주 능숙하게 배반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롯 유다'! 그는 한평생의 흐름을 아주 인간하게 보고도 대처하는 신숙한 현상주의자였다. 그는 재빠르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작 '온 삼십'에 팔아 넘겼다(15절). 후일에 예수의 다른 제자인 '요한'은 그를 도적이라고 말하며(요 12:6), '누가'는 예수와의 밀담중에 대하여 세상에 가장 교활하고 악독한 연극이라고 시시했다고(22:48), '마태' 역시 그의 본질에 대한 예수의 평가를 기록함으로써 그의 패역함을 기록했다(마 26:24).

'유다'의 삶과 우리의 삶

'유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꿈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세에게 신화를 받았기에 회계(會計)의 일까지 맡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거저대려도 자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향유를 찾는 자(눅 22:3~6). 원래 '유다'(Jude)라는 이름은 이브라함의 아사, 아람의 계통을 잇는 축복된 이름이었다(창 29:35, 49:8~10, 마 12). 그러나 그가 자신의 소망인 예수를 팔아 넘긴 이후로, 자녀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신실한 고지자', '여호와를 찬송하느라 자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라는 이름이 그로 삼위일체 악독한 배반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소심'을 놓고 세상과 흥청하는 자였다. 또한 '진리'를 놓고 세상과 흥청하였으므로, '구주'를 놓고 세상과 흥청하는 가장 이기적으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유대인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향유를 찾는 여인에게 분노하던 철저한 현상주의와 계산적인 '가롯 유다'! 그는 소심을 팔아 넘긴 책략자였고 세상의 흥청하고 있었다. 때로처럼 '회계'의 문명으로부터 잊고, 잔치를 즐기며 재물의 문으로 돌아가 버렸다(마 27:4~5). 그리고 그가 흥청의 대가로 받은 온 삼십은 '팔'을 사는 길이 되었다(마 27:7~8).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흥청을 하고 있었다. '소리의'의 공평한 예언의 징조를 '가롯 유다'는 단숨에 마셔버렸다(마 11:29~33).

그러면 우리는 '유다'를 비난할 만하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다의 흥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과 가관을 가지고 주찬을 떠든다(마 23:13) 그러한 흥청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딤후 2:4). 우리로 하여금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흥청의 삶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베히루 39, 살전 5:9).

감싸게 팔아버린다

'가롯 유다'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감싸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흥청을 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마 27:4).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의 돌이킬은 도덕적 양심의 개혁일 뿐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참된 회심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자기의 흥청의 값을 지불받게 될 것이다(렘 30:14). 집 나간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렇듯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첫째 아들,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러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들은 모두 구원을 세상에 감싸게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흥청(trade)의 종주자들이다.

죄의 허무함

진실로 온 세상을 사는 자는 온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부요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전 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과 흥청하는 자들 - 선뜻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주는 자들은 진실로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인가! 분명히 그것은 죄이며, 그러한 흥청에 빠진 자들은 지옥에 아무 것 없는 반손을 뿌려야 할 것이다.

영혼의 깊은

예수께서 일찌감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영도록) 보존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2:25). 하지만 '자기'의 살아남는 것만을 위해, 또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예수'를 남존증 빌려다오! 192년 그는 세상과 흥청하여 예수를 넘겨준(마 26:4) 자기 영혼을 마구에게 팔아먹은 꼴이 되었다. 또한 예수를 넘겨줌으로써 예수께서 부하하신 영혼의 가치를 감싸게 만든 자가 되고 말았다. 기어코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막 8:36)

All be one

(John 17:18-22)

"That they may all be one; even as Thou, Father, art in Me, and I in Thee, that they also may b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Thou didst send Me. And the glory which Thou hast given Me I have given to them; that they may be one, just as We are one"

Today's Bible verses are part of Jesus' intercessory prayer to His Father. They concern the unity of believers, "that they may all be one". Jesus says to His Father, "But now I come to You; and these things I speak in the world so that they may have My joy made full in themselves" (v. 13). Jesus truly wants us to have divine joy. He asks His Father for believers to receive God's Word, so that they can be sanctified and not belong to this world, but become just as He is in His Father and His Father in Him, "that they also may be in Us" (v. 21). Jesus prays for believers to become one. He wants us to be biblically one. When we come together as a spiritual family, we receive divine unity. Isn't that wonderful? As a sinner, as a coward, as a selfish individual, when we become sanctified, God fills the inside of all our bodies with His Word, and we get divine unity. It is for this purpose that Jesus prayed to His Father. For believers to be one is an amazing miracle.

When we are sanctified, set apart for God and His holy purposes, we become part of one body. Paul describes this relationship by saying, "For even as the body is one and yet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they are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Christ. For by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Jews or Greeks, whether slaves or free, and we were all made to drink of one Spirit" (1 Cor. 12:12-13). The Spirit forms a spiritual organic unity of the many dissimilar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God places the members, each one of them, in the body, just as He desires (see v. 18). He does this so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the members may have the same care for one another (see v. 25). We take the cares of others on ourselves and cast our own cares on our Lord, so that there are no struggles or fighting, "And if one member suffers, all the members suffer with it; if one member is honored, all the members rejoice with it" (v. 26). In other words, we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thereby fulfill the law of Christ (see Gal. 6:2). Indeed, when we are sanctified we become one body.

When we are sanctified, we have one fellowship. The Bible tells us that the results of Pentecost produced a spiritual family that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veryone kept feeling a sense of awe; and many wonders and signs were taking place through the apostles. And all those who had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Acts 2:42-44).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Acts 4:32). Amen! What a fellowship. When the Holy Spirit controls every individual believer for heavenly meaning and the Word of God controls each life, then fellowship flourishes. There are no arguments or quarrels. As Paul exhorted the Corinthians,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ou all agree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made complete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1 Cor. 1:10). All too often we think the church should be democratic. This is wrong, and it is the

reason so many churches lose focus of the cross. Paul warned the Romans, "Now I urge you, brethren, keep your eye on those who cause dissensions and hindrances contrary to the teaching which you learned, and turn away from them. For such men are slaves, not of our Lord Christ but of their own appetites; and by their smooth and flattering speech they deceive the hearts of the unsuspecting" (Rom. 16:17-18). Christians must be of one fellowship, the kind that glorifies God and proclaims one Gospel.

When we are sanctified, we share one faith. Believers are diligent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For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also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Eph. 4:4-5). All Christians must keep one faith, and wholeheartedly believe in one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Paul kept the faith in two senses, he was obedient to it, and he passed it on as he received it. He was able to proclaim,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2 Tim. 4:7).

When we are sanctified, we have one future, one hope. We look forward to God's promise of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Jn. 17:3). We only know one God, who promises to prepare a place for us in heaven (see Jn. 14:3). Let us keep close to our hearts His Words of grace,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 (Col. 3:1-4). Amen!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hich is our house is torn down,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 5:1).

As one, we will live and rejoice i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e will dwell in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see Rev. 21:1-2). Do you know this place? It is a place where "there will no longer be any curse; and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will be in it, and His bond-servants will serve Him; they will see His face, and His name will be on their foreheads.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night; and they will not have need of the light of a lamp nor the light of the sun, because the Lord God will illumine them; and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Rev. 22:3-5). Do you have this dream, this future, this hope? What is your vision for the future? Is it about making more money, reaching fame, acquiring more material possessions, or having nice kids? If this is your focus, then you are not part of the body of Christ. God offers you the opportunity to be His child, the son/daughter of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and Host of Hosts.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be with all. And we say, "Amen. Come, Lord Jesus". And He answers us, "Yes, I am coming quickly" (Rev. 22:20). Do you have this vision? If you do, then you are in God and He is in you. 

하나가 됨

(요 17:18~22)



김성관 목사

하나됨을 위한 주님의 기도

오늘의 성경본문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수의 중보기도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신적인 기쁨을 가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이도록 그의 아버지께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세상에 속 하지 않게 하며,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만듭시다(21절).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신적인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길 잃은 자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내면을 채우시며, 우리는 신적인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구별되는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2~13).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다른 많은 구성원들을 영적인 조직체로서 연합하게 만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데로 그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치하십니다(18절 참조).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몸에서는 어떤 분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돌봄을 받습니다(25절 참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 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자신은 주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더 이상의 다툼이나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자들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26절). 다른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집을 대신 짓기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시다(갈 6:2 참조).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친교

우리가 거룩해질 때,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친교를 이룹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들이 낳은 오순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행 2:42~44). “만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아멘! 이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들 각 사람을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 람의 삶을 다루게 될 때, 참된 영적 교제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다툼이나 논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곡하게 당부한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 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교회는 민주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경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회를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지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롬 16:17~18).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한 믿음에 이름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평안의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엡 4:4~5).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리에 순종한 것과 그가 받았던 믿음의 담요질을 넉넉히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한 미래가 예비됨

우리가 거룩해 질 때, 한 미래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위하여 앓을 바라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우리는 단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요 14:3).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1~4). 아멘! “진일 땅에 있는 우리의 정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냐”(고후 5:1).

한 곳에서 한 기쁨을 누리게 됨

하나가 되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계 21:2 참조). 여러분은 이곳을 알고 있습니까? 이곳은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느니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느니라.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취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계 22:3~5). 여러분은 이러한 꿈과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명성을 얻는 것, 보다 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추구하는 것, 또는 좋은 자녀들을 갖는 것이 비전은 아닙니까? 만일 이것들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 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한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만난 '비전'

주 순 회 (고동부 교사)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수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을 만나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도착하여 처음 만난 청년 '비전'은 다카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청년이다.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방글라데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속소까지 알아와 그 방법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조금 뒤에 하고 당장은 방글라데시가 잘 사는 나라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잘 사는 것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우리 숙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자기 나라가 잘 살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애썼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 청년이 "당신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겠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음에 감격하며 그에게 "당신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 위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면서 영접기도를 했다. 참 기쁨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어 감사했다.

지슈계 비사시 포레 베헤르미 라트 제메 팔벤(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선교 소식

키자흐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2교구선교단이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교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사랑 · 인내 · 겸손

김 한바로 (대학부 과대말라 단기선교단원)

선교를 가기 전, 많은 사람에게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파데말라의 3200m의 거친 산을 오르면서 낙오할 수도 있었고, 토르미야라는 오수수 가루 부침개에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역으로 피곤해 지쳐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또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 단원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셨기에 넉넉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인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낀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높고 높은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사랑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야 인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내를 느꼈습니다.

높고 높은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사랑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야 인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내를 느꼈습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을 사역하며 육신이 많이 피곤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을 느꼈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이도 닦지 않고, 옷도 한 벌 뿐인 인도인들에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그들에게 다가가 수 있었고 겸손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침낭에 들어와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이며, 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한다

곽 회 승 (사랑부 인도단기선교단원)

원래 저녁 10시만 되어도 슬그머니 눈이 감기던 내가 이렇게 늦은 새벽까지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떨리는 마음이 감 못되는 밤을 보내게 한다.

인도 단기선교사역을 하면서 늘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과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생각이 있었다. 9박 10일의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늦은 밤 같이 모여 기도회를 한 것과 빈민촌 전도, 심방 전도, 대학 캠퍼스 전도한 것이다.

사역이 7일 정도 지났을 즈음,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처음 출발할 때와 달리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 속에 불평이 생기고... 그 때 마침 기도회를 할 시간이 있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의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팀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나와사역에서는 빈민 지역의 어린이 사역과 노방 전도 사역을 하였다. 시골이어서 그런지 흑인 비금가게 새까맣고 꼬질꼬질한 아이들...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폐해하며 즐거워하며 같이 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찬양 사역 내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앉아 감이 찬양을 불렀던 작은 꼬마들... 마음을 다해 준비해 갔던 찬양들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유일하신 주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갔던 인도의 편잡 주는 대부분 힌두어가 아닌 편잡어를 사용했다. 정말 사역을 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편잡어를 잘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과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인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 믿으세요?"라고 물으면 거의 "믿는다"라고 대답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여러 신들 중의 하나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기 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길 기대하며 소망한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한다.

시
자
가
에
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롬3:25, 요일 2:2; 4:10).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화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화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화목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 일에 벌적 화를 내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적대감을 갖고 계신다. 둘째로, "그 화목을 누가 이루는가?" 하는 문제이다. 성경에 의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떤 제물을 바치거나,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다. 물론 구약에서 희생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사는 은혜로사니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던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결과가 아니라 속죄의 원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무엇이 그 화목 제물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 그 제물을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주셨다.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는 자신을 주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충할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시므로 마침내 그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 그의 아들 안에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시므로써, 자신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랑의 주도적 행동을 취하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목 목사)

야사의 개혁 (대하 15:8~19)

야사는 아비야 후에 세워진 유다의 왕이다. 이 본문에서 보자면 야사는 신 지자 이사야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과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폐하고 야세라 상을 제거한다. 그리고 여호와와 손을 중수하는 일을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친 야사의 모습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그 지도자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언약의 맹세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

이 맹세는 생명을 내어놓는 맹세였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맹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기쁨을 가진다. 그들만 기쁜 것이 아니었다. 그 찾기로 한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그로 인해 그 땅에 평안을 주신다. 반면 야사의 모친 마아가는 야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다. 야사는 자기의 모친을 태후의 위에서 폐하고 그 우상들을 찢고 뺏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린다.

나는 이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은 유다 왕 야사의 대대한 모습을 본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는 왕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왕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것은 한 나라를 하나로 연합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한 백성들의 기쁨. 그들에게는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생긴 갈증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로 맹세한 그들 안에 참 기쁨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갈증을 적셔주는 기쁨이었다. 우리의 명예와 권력, 안정된 직장, 경제력...이것들은 잠시 기쁨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타는 듯한 갈증의 해결해 줄 생수는 아니다. 더운 여름 폭포수 밑에서 그늘 수 있는 그 시원함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기로 한 맹세가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찾기로 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웬지 이리도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큰 소리로, 피리로, 나팔로 출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때 함께 그들과 출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그들이 그리기를 원하셨을까? 그렇게 기뻐하시나....

단기선교를 다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고 있었고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려는 모습이 있었다. 무엇을 했다는 성취감...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겠다. 이제는 시간을 드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미에 (청년1부)

담대한 엘리야와 능력없는 바알 선지자들 (왕상 18:16~29)

신 향 현 (청년1부)



3년 6개월만에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죽음을 부를수록 아주 담대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뭄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임을 지적한 엘리야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이기를 원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가 가르쳐는 것이었다. 또 결전을 보기 위하여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신앙의 확실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그들을 책망하였다.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지적하며 확실하게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명쾌하신 하나님! 그분은 미지근한 모습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엘리야가 말했듯이 내가 따라가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신앙에 있어 차든지 답든지 하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분명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것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길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불잡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총아지에게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확신해 보려는 제안을 하면서, 진정으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만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시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들이 때 때가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남마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에게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싶으시다는 걸 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저기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남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나 살아계심을 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늘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식하면 용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김 현 정 (청년1부 인도 단기선교단원)

선교지에서 발견한 것: 이방신을 섬기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기쁨.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귀한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신. 마지막으로 나의 무력감.

나에게 정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복음밖에는.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힌두 사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설득을 할 아무런 것도 나에게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용기도 없더군요.

우리가 만났던 델리 대학의 한 학생이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삶의 양식이며, 더 나아가서는 삶 그 자체이고 정신적인 지주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저를 더 용서롭게 했습니다. 정말 힌두사상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이들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끝까지 복음을 들어 줍니다. 더군다나 놀람게도 영접 기도까지 마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주님께 달린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들이 ye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전 그냥 주님 명령대로 내 무식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인도 친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써먹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께서 불러주신 인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두 번이나 마주친 그 형제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멀리서 우릴 보고 와서 말을 걸었던 그 청년에게 왜 바보처럼 대답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만 하면서 뭔가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떠나려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더 많이 전하지 못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나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게 못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뒤쳐져서 '주님,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말아야죠.

구역장 여성훈련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

8교구 방준영 목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히 9:27). 이 죽음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은 죄의 삯'이다. '영생'은 하나님께 갈 때에만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고난과 두려움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각종 종교를 갖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도를 닦으면 죄와 멀어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선을 많이 행하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 자체가 이미 죄를 지니고 있으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완전히 선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않음은 물론 죄성 자체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현대에는 기독교가 타 종교와 손을 잡으며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넓은 마음을 품은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사랑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찾는 자란 그 분의 능력과 성품, 주되성과 계획을 모두 알고 찾는 자를 말한다. 즉,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며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시온의 길을 걷는다. 시온의 길은 좁은 길이다. 어렵고 역경이 따르는 길이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 죄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죄에 속한 사람들은 시온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속에서도 뜻밖이 시온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시온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황재정♥이정화' 부부를 소개합니다



임신 중인 아내, 아들과 고양이 원당에 살며 직물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의 전도로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몇 번 교회에 나와본 적이 있어서 어색함이 덜 했는데, 아내는 교회가 처음이라 무척 어색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부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차분히 설명해 주셔서 늘 감명받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언제라도 믿고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고마울 뿐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다음 주일 찬송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이 찬송은 1866년 사무엘 존 스톤 목사가 그의 마지막 시집 '충성된 자의 거문고'에 실었던 '사도신경'을 기초로 한 13개의 교리적인 찬송시 중의 하나로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작곡은 찰스 웨슬리의 손자인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가 1864년에 작곡한 다른 곡에다 1868년에 이 찬송시를 붙여 훌륭한 찬송가로 탄생하게 되었다.

- 1절: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로,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다.
주 예수 강림하시 피 흘려 사셨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 2절: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을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 3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찬송은 어느 한 가사도 소홀히 부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찬송이다. 셋째단의 부절(전 4분음표)있는 부분은 절정인 듯 약간 느리게 부르고, 전체적으로는 소리 크기(볼륨)의 조화를 이루어서 가사 하나 하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서 불러야 할 것이다.

(전원위원회)

소 망

정재복 (집사, 소망부)

내게 생명(生命)주시고 소망(所望)주시고 안위자(安慰者)가 되시는 내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榮光)을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고생(苦生)스런 인생(人生)도 주(主)님 계시면 참다운 삶의 뜻을 찾겠사오니
주님만을 의지(依支)하고 살 수 있도록 내 주님 인도(引導)하여 주옵소서

우매하고 비천한 나의 영혼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었건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決心)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다남은 금생도 믿음주시고 지혜(智慧)·능력(能力)·성령(聖靈)충만 주옵소서

세상(世上)의 짧은 부귀(富貴)·영화(榮華)·명예(名譽)는
역사의 뒷장으로 물러 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행복(幸福) 우리에게 주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갖도록 우리의 믿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헛된 세상 버리게 하시옵소서

양호실

6교구 조경현 성도(남59세) 폐암 수술 후 항암제 투여 중입니다. 환우와 가족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디며 병이 치유되고, 신장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영주 성도(남30세) 위 조경현 성도의 아들입니다.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언어장애가 와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학업을 받았는데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문이 열리고 신체 각 부위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교구 박수환 씨(남39세) 갑종비 성도의 장남입니다. 뇌 신경 치료 중 악몽중독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으나 현재는 교회와 멀어진 상태입니다. 병이 치유되도록,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조덕순 권사(여73세) 쾌양성 장영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소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윤 석 민 (안주성서, 영아부과장)

내게는 귀하게 여기는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그 중 막내 여영이가 8살이 채 되기 전에 성경을 처음으로 다 읽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찍은 사진은 매우 귀하다. 여영이도 형들처럼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아침 6시 일어나면 자기 성경을 들고 형들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성경을 읽는다. 아침에 3장을 읽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내 아이 세 명을 선물로 주셔서 군대식으로 성경을 읽게 할 수가 있었고, 또 자기들도 서로를 돌아보며 감시 감독을 하게 됨으로 성경 읽기를 빼먹지 않을 수 있었다. 서로의 격려와 독촉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 어린 나이에 모두가 성경을 첫 완독하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었다.

여영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불치병인 크론병에 걸렸다. 몸무게는 20kg 이나 빠지고, 먹는 대로 설사를 하여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병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약도 없는 병이라 퇴원하여 집에서 버티는 투병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집에 누워 혼자서 보내는 것은 고통이었다. 엄마마저 직장에 가버린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지내는 여영이에게 아침은 고통이며, 낮서 두려움의 시간이었다. 그 때 여영이는 말씀을 떠올리며 찬송을 불렀다(찬송가 449 장).

“이 세상에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간종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며, 비록 몸은 불완전도 기쁨의 얼굴로 교회에 나가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영이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복학도 하였다. 아직도 몸이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여영이의 몸이 남들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분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생수가복음(Luke)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영적인 시각을 이해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의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이라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 저술가에게 비해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건강한 지체에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지체에만 쓸 데 있다'라는 말씀을 피부로 이해한 것일까요(눅 5:31).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광경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 고치시니' (눅 4:40, 마 4:23, 8:16, 9:35,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표현은 이곳뿐입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 영구히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인간의 육체를 영원토록 썩지 않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썩어질 몸을 고치시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부활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고전 15:53).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가장 잘 아는 의사인 '누가'가 증언하는 부활에 대한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누가'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제인 셈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누가'에 나타난 비유를 잘 이해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비유를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을 비교'하고, 생활 가운데 있는 일을 소재로 삼았으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양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진리에 무관심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로부터 진리의 해산을 받으려고 비유를 사용하였으며, 비유를 통해서 옳은 가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명한 비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장), 자정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11장), 이리저리는 부자에 대한 비유(12장),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15장),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15장), 불의한 청지기(16장), 불의한 재판관(18장), 바리새인과 세리(18장)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김동하 목사(송진부과장)

몸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8월 8일 우리 팀은 몽골로 향했다. 3시간쯤 지나니 몽골의 넓은 사막이 보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오보니 우리를 위해 차 2대와 통역사 3분이 나와 계셨다. 우리는 바로 만달기어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도 쉴 때마다 전도했다. 몽골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이라고 대답도 하였다. 한국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줄 때마다 더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맨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머뭇머뭇 했었는데 자꾸 전도를 하다보니 지체가 생겨서 처음보다는 많이 할 수 있었다. 또 몽골사람들이 내 발음이 틀려도 잘 들어 주어서 좋았다. 내려가다가 또 전도를 했는데 내가 어떤 여자 분한테 전도를 하니가 어떤 아저씨께서 "한국에서 오셔서 이런 전도를 하면 안됩니다"라고 몽골말로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얼른 몽골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몽골 사람들은 절대 거절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켈(몽골의 전통악구)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과 수태자라는 차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잘 들어주었다.

한 사람이 지나고 나니 나는 내 눈이 이상히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태양빛을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 눈이 안 보이 시작됐던 것이다. 그래서 몽골사람들에게 사영리도 잘 읽어 주지 못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몽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하는 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열린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 점점 좋아졌다. 정말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다닐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처럼 구름기둥을 체험할 수 있었다. 구름기둥을 보니 힘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선교를 마칠 수 있었다.

나는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몽골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지니게 되었다.

이 지 윤 (중동부과)



[민음의 창]

두 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은 하나님께 사랑이심'을 임의로 고백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마 16:16)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마 11:27)입니다. 하지만 이들 신앙 고백보다 더 실천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임의로가 아닌 눈물과 행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막14장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름조차 모른 여인입니다(마 9:37).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귀신이 나가 몸이 온전해지는 체험을 했으며,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는(눅 6:32)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였습니까(고후 5:17). 자신의 죄성을 통회하며, 구속의 은총을 만끽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비천한 존재임을 잘 알고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뜻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예수님께 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마 7:39). 정말 귀신이 아픔입니다. 예수님을 헐뜯고 싶지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에 가슴앓이만 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그의 것이 가장 아끼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비록 그것지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머리엔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죄 많은 여인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립니다(마 7:38).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있는 합성어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곧 복음입니다(벧전 1:25, 요 1:1). 그리스도란 기쁨부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달리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쁨부음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죄 많고 멸시받은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기쁨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자 인자의 상한 발꿈치(창 3:15)가 위로 받았습니까. 구약의 완성과 마칠되는 그리스도가 이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 공표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막 14:9) -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2천년 역사의 기독교는 확한한 죄인(딤후 1:15)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되심'(행 9:22)이 증명되는, 낫고(마 5:3, 눅 6:20), 비천한(눅 1:48) 이들의 종교입니다.

박경배 (외선부과)

